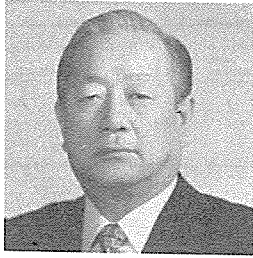


“科學技術의 발달과 人間”



李 敏 載
(自然保護中央協議會長)

1959년 여름 캐나다의 몬트리얼에 있는 맥길大學에서 國際植物學會가 열려서 거기에 참석한 것이 내가 처음 美洲에 간 해이니 지금부터 27년전의 일이다. 물론 돌아오는 길에 미국에도 들러 이곳 저곳 구경도 하였지만, 그때 캐나다에서나 미국에서나 가장 잊을 수 없는 것은 精神病院이 눈에 많이 띄었다는 일이다.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정신병이라 하면 미치광이를 치료하는 곳으로서 청량리의 腦病院밖에 본일이 없었던 나에게는 꺾이나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그로부터 27년후인 오늘날, 우리나라의 도시에서도 십십치 않게 精神病科의 開業醫의 간판이 눈에 뜨인다.

그런데 더욱 놀란 것은 이 精神病院이 돈을 가장 많이 번다는 이야기이다.

우리나라에 이렇게도 미친사람이 많이 늘었다 단 말인가. 청량리의 뇌병원밖에 모르던 나에게도 하나의 놀라움이 아닐 수 없었다. 지난 27년 사이에 이 나라가 어떻게 변했기에 精神病患者가 이렇게도 많이 늘었다 단 말인가.

우리는 1962년부터 5 차에 걸쳐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행해 왔고, 그 때문에 연간 수출이 3000만불에서 3백억불을 넘어섰고, 국민소

득도 1인당 78불에서 2천불을 훨씬 넘는 半富者 나라로 성장했다.

社會發展相은 歐州에서 200년이 걸렸고 일본에서만도 100년이 걸렸던 近代化作業이 우리나라에서는 4半世紀 동안에 이를 달성했다. 지금 우리 社會는 先進外國처럼 近代化 社會로 부터 情報化 社會로 줄다름질 치고 있지 않는가.

서서히 변하는 현상을 발전이라 하고, 급속히 변하는 것을 혁명이라 한다면 바야흐로 우리 기술과 사회는 革命的으로 변화 발전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더우기 近代化란 우리의 육체노동을 補助擴大시키는 작업과정이라고 한다면 情報化는 우리의 두뇌활동을 助長擴大化시키는 작업과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때 여기에 오늘에 사는 人間の 問題가 있다.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는 때가 있다. 즉, 우리들의 할아버지들의 시대에 기차도 자동차도 없고 더우기 비행기 같은 것은 꿈도 꾸지 못하던 때 이었지만 과연 그 할아버지들이 「이 世上이 불편에서 못살겠다. 참 나는 不幸하다」라고 느꼈을까 하는 점이다. 내가 어렸을 때 나의 祖父님이 나를 업고 다니며 「이놈 자식 똥자루처럼 무겁구나」 하시기에 「똥자루라면 똥물이

홀라서 어떻게 해요?」「이 자식 봐라!!」의 대화가 생각난다.

나의 祖父는 나를 업고 다니는 것이 그렇게도 행복할 수 없었고 또 여름철이면 아버님이 말리는 참외를 사서 나에게 먹여주는 것이 그렇게 祖父님께 만족스러울 수 없었던 것 같다. 이 세상이 불편과 불행에 가득차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았다.

그런데 오늘날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交通도 편리한 이때, 길가에 다니는 사람에게 「지금 幸福하다고 느끼니까」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글쎄요」하고 만족스러운 대답을 하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科學技術의 발달의 根本目的이 인간의 행복을 위함이고, 더 나은 생활을 위한 인간의 노력이어야 한다고 한다면, 지금 옛날보다 오히려 不幸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이 不可思議한 현실문제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옛날 나의 학창시절에 「찰리체플린」이란 稀世의 名喜劇俳優가 제작한 영화에 『모던타임즈』란 것이 있었다. 그 영화의 한 장면에서 工場監督官이 TV 모니터같은 것으로 各作業場을 비쳐보고 이래라 저래라라고 명령도 하고 작업을 독촉도 하는데, 그중 한 작업장은 실사이 없이 돌아가는 기계속에서 두손에 스패너를 쥐고 실사이도 없이 낫트를 일일이 하루종일 조이는 노동자가 있었는데, 이 노동자는 이 작업이 어느새 反射的 운동으로 되어 무엇인가 뽀족한 것만 보면 조일려는 충동을 받게 되어 하루는 거리에서 中年婦人의 앞가슴을 보고 그 두개의 뽀족나온 突起를 조일려고 婦人에게 달려들어, 婦人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는 장면이 나와 관중을 웃기지만 나는 무언가 현대문명에서 기계속의 한 부속품이 되어버린 인간을 보는 것 같아서 쓴 웃음으로 바라보던 기억이 잊혀지지 않는다.

우리 人間은 現代社會에서 이 노동자 처럼 되어가도 좋은가.

나의 祖父님이 나를 업고 다니며 이것 저것

사 먹여가며 즐거움과 행복을 느꼈던 그 심정을, 오늘날 자가용차 뒷자석에 손자를 앉혀놓고 복잡한 거리를 오너 드라이버로 질주하면서 그 심정을 느낄 수 있을까?

科學技術의 발달은 근본적으로 박수치며 환영해야 할 일임에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위의 “모던 타임즈”의 가련한 노동자처럼 인간성마저 잊어버린 한낱 기계의 부품으로 전락해 버린다면, 이는 인간의 행복과 福祉社會의 건설을 根本理念으로 해야 할 現代化, 情報化의 사회는 오히려 精神病院의 번창을 가져온 결과를 초래할 뿐이고, 또 거기까지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회를 不幸한 社會라고 느끼는 사람의 수를 격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近代化도 좋고, 더우기 情報化도 모두 좋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인간다운 건전한 인간이 사는 사회의 건설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科學技術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더 높이, 더 빨리 發達할 것이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이 테크놀로지와 휴머니즘의 갈등이 심해 가리라는 생각이다.

이 兩者의 갈등을 풀어주고 휴머니티가 相殺되지 않고 살아 넘쳐홀라서, 건전한 인간이 이 테크놀로지를 지배할 수 있을 때, 이 사회는 건전해질 것이고, 그랬을 때 科學技術發達의 원래의 목적인 인간복지를 위해 도움을 주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1959년 美州에서 보았던 精神病院의 번창이 우리나라에 까지 온 이상 더 이상 이런 병원이 늘어나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남이 100년 또는 200년에 걸어진 길을 우리는 縮地法으로 四半世紀에 도달하느라고 인간도 사회도 다 제쳐놓고 돌진했다. 이제는 인간으로 돌아올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더우기 情報化社會의 출현을 앞에 두고 이 感을 더욱 새롭게 한다. 모든 사람이 진실로 幸福한 社會라고 느끼는 사회가 되기 위해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